

# 광주·전남 여행사 고사 직전인데...이제야 피해 조사?

### 제주항공 참사 여파로 개점휴업 상반기 예약 줄추소에 피해 막심 국토부,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용역 피해 현황 분석에 6개월 소요 예상 “얼마나 더 기다리라고” 한숨 가득

“제주항공 참사 이전보다 70% 이상 매출이 줄었다. 한 달 한 건 여행객 모집도 힘들다. 빚내서 살고 있는데, 폐업도 합부로 못하는 상황이다. 세계 지원 조금하고 대출금 상환 연장해준다고 먹고 살 수 있겠냐.”

“전세기 한 편 못 띄우면 여행사는 3억원 정도 손실이 발생한다. 손님은 없고, 죽겠다는 소리밖에 더 나오겠냐.”

국토교통부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반 년이 지나서야 광주·전남 지역 참사 여파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해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대형 항공기 사고로 올 상반기 여행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는 등 여행업계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 구제를 받으려면 앞으로 6개월을 더 넘게 기다리라는 식의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24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용역은 6개월에 걸쳐 광주·전남 여행업계 등의 피해 현황을 분석한 뒤, 적절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업계에서는 이미 지난 6개월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해 고사 직전인데 또 얼마나 걸릴 지 몰라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전남관광협회에 따르면 광주에는 220여 개, 전남에는 600여개의 여행업체가 등록돼 있다. 이 중 광주 업체만 하더라도 12·29 제주항공 참사 이후 직후 1~2월 사이 2만 700건의 여행 예약이 취소됐고, 피해액은 300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지자체로부터 받은 피해 보상 대책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광주시가 제공한 대책은 코로나19 시기 받은 대출 원금 상환을 1년 유예해주고, 광주에 관광객을 유치하면 인센티브를 대폭 상향해주는 수준에 그쳤다.

전남도 또한 300만원 상당의 홍보 마케팅 물품을 제공해 실질적인 현금성 지원은 없었다. 도관광진흥기금으로 운영자금 거치기간을 2년 거치·3년 상환에서 4년 거치·3년 상환으로 늘리고 운영자금 한도를 최대 3~4억원으로 증액했지만, 빚을 늘렸을 뿐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협회는 광주공항에 한시적으로 국제선을 취항해 달라는 요구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부터 여행사 재해보상보험가입제도 지원도 실시하고 5억원 상당의 재해 보상을 가입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으나,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당장 자금난에 허덕이는데 매월 13만원의 자부담금을 내고 보험에 가입할 여유가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더구나 이 보험은 제주항공 사고에 대해 소급 적용되지도 않는다.

손철오 88관광여행사 대표는 “코로나19 이후로 여행 업계가 살아나려고 했는데 무안 공항이 폐쇄되면서 죽을 지경이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손 대표는 “7월에도 몽골 여행이 잡혀있는데 여행객 수가 채워지지 않아 8월로 미뤄진 상태. 최소 10명이 되어야하는데 몇 명이 취소해버리니까 그 여행은 가지 못한다. 한 달에 최소 2~3건은 해야하는데 1건도 못할 때가 부지기수다”고 말했다.

강해련 광주시관광협회 이사는 “비행기 1대 200석이라고 하면 하루 비행기 1편 못 띄우면 여행사는 3억원 정도 손실이 발생한다. 전세기 업체 등까지 합치면 손실액은 5억원이다”며 “그러니 죽겠다는 소리밖에 더 나오겠냐”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피해지역인 광주·전남을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피해 현황을 분석을 거쳐서 지역의 기초 경제현황과 참사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 피해를 업종, 분야별로 정밀 분석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30일 시행 예정인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조치다.

이후 지자체 공무원, 지역 소상공인 및 관광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지역 연구기관, 상공회의소, 대학 등 민간 전문가 자문을 병행해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 정준호 의원 발간 ‘제주항공 참사 백서’ 논란

### 항공사 두둔 내용 무더기 포함...유가족 입장은 살피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이 발간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백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고 항공사인 제주항공을 두둔하는 내용을 무더기 포함하는 등 유가족 입장을 살피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 의원은 23일 백서 ‘12·29 여객기 참사, 사고 현장에서의 7일’을 공개했다.

백서는 참사 이후 유가족들의 일주일간 행적을 중심으로 사고 수습 과정을 담고 있다. 초기 상황 전파, 수색·구조활동, 희생자 신원 확인, 장례 준비, 현장 수습 과정 등이 담겼다.

문제는 백서에 사고를 낸 항공사인 제주항공에 대한 일방적인 찬사와 광주 자치구 의원에 대한 칭찬 등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었다.

백서에는 ‘책임감 보인 제주항공’이라는 제목 하에 제주항공이 400명 임직원을 파견해 유가족을 지원했다는 내용이 4페이지에 걸쳐 쓰여 있었다.

해당 항목에는 ‘제주항공의 책임 의식은 유가족들에게 큰 위안과 신뢰를 주고 있다’, ‘직원들이 진심으로 슬픔을 함께해 유가족들은 그들과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초기에 제주항공에 불만을 표하던 일부 유가족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을 열고 신뢰를 보내게 됐다’ 등 제주항공을 두

둔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백서에는 ‘비공식적 안내데스크, 유가족 사랑방’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미용 광주 북구 의원이 유가족들을 위한 비공식적 안내 창구를 열었다는 내용이 4페이지에 걸쳐 쓰여 있었다.

유가족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김윤미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사는 “제주항공 대표가 유가족에게 고소당한데다 경찰 조사도, 진상규명도 하나도 이뤄진 게 없는데 제주항공과 정부가 사고 수습을 잘했다는 식으로 참사의 과정을 찬사하는 책이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유가족협 대표단 사이에서도 백서 발간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 유가족들에게는 정 의원이 다른 의도를 갖고 쓴 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 유가족협 대표단이 새로 꾸려지기 전인 제1기 대표단과 협의해서 만든 백서이며, 의원실 관계자를 통해 직접 취재를 해서 정리한 내용”이라며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유가족들 사이에서도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다른 의도를 갖고 백서를 제작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 의원 측은 백서를 국토교통부 등에 배포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iyou@



집중호우 대비 모래주머니 만들어요  
광주시 북구청 하천제방과 직원들이 23일 영산강교 아래에서 장마철 침수 예방을 위한 모래주머니를 만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87명 탄 여객선 조타기 고장 ‘아찔’

### 신안 앞바다서 표류...목포해경 출동 20여분만에 전원 구조

신안 앞바다에서 87명을 태우고 목포로 향하던 여객선이 조타기 고장으로 표류하는 사고가 났다.

23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신안군 장산도 동쪽 약 1km 해상에서 여객선 A호(720 t급)가 조타기 고장으로 비상 조타를 이용해 항해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배 안에는 승객 83명과 선원 4명 등 총 87명이 타고 있었으며, 화물차 등 차량 25대가 실려 있었다.

A호는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장산도 측강 선착장에서 출항했으며, 오전 9시 50분께 목포 연안여객선터미널로 임항할 예정이었다.

A호는 출항 직후 조타기 이상이 발생해 선내 무

전으로 해경에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20여분만에 해경 경비함정이 도착하자, A호 승객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경비함정 3척에 나눠 탑승했다. 승객들은 오전 11시 40분까지 세 차례에 나눠 목포 여객선터미널로 이송됐다. 구조 과정에서 해경은 흑시나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를 대비해 주변 해역 안전관리를 병행했다.

이후 해경은 예인선을 이용해 A호를 끌고 낮 12시 20분께 목포항으로 입항을 완료했다.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나 차량 등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선박 업체는 조타기 고장난 원인을 자체 조사 중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조합장 출마자 낙선시키려 전과 광고 낸 60대 벌금형

조합장 출마자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신문에 후보자의 전과를 열거한 광고를 실은 6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가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전남 지역 신문에 조합장 후보자 B씨의 범죄 경력을 적은 광고를 게재 의뢰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고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다.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로 벌금,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이력에서 기록해야 하느냐’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B씨의 실명이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으나, A씨는 해당 광고 하단에 B씨가 소속된 문중의 문회 개최 소식을 담은 광고를 게재토록 했다.

한편 B씨는 당시 선거에서 당선됐다.

/유연재 기자 yiyou@kwangju.co.kr

### 한 사람의 보험비교 사이트 전 국민의 경제부담

#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알바 댄는데 해볼래?  
[병원 입원 알바]  
고수익 보장  
보험 가입 필  
http://x&3@%M

##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STOP

##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   |                         |
|---|-------------------------|
| ☎ 금융감독원 콜센터<br>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 각 보험회사<br>대표번호          |
|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br>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br>보험범죄신고센터 |

**알선이란?**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경찰청 KOREAN POLICE AGENCY

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

국민건강보험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생명보험협회 KOREAN LIFE INSURANCE ASSOCIATION

손해보험협회 KOREAN REINSURANCE ASSOCIATION

IGFA 보험GA협회